‘맥쿼리 사례’ 되풀이될라… 지자체들 ‘민간투자 확대’ 회의적

지방공약 124조원 마련 방안 살펴보니…

84조 필요 96개 신규사업 구체화 안 돼

계속사업과 신규 나누는 기준도 모호해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124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지역 공약 실천을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공약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눈 뒤 우선, 계속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지만 신규 사업의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대형 SOC의 경우 사업 추진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예산 투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은 모두 106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167개 공약사업으로 나뉜다. 광주·전남의 지역공약은 각각 7개, 공약사업은 11개씩이다.

광주시·전남도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예산 규모는 모르지만 이 지역 공약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이들 167개의 지역공약을 모두 이행하는데 총 1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중 이미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계속사업은 71개, 신규사업이 96개로 분류했다.

계속사업의 소요재원은 40조원이며 이 중 국비가 26조원, 지방비가 4조8000억원, 공공기관 부담이 2조6000억원, 민간자본 등 활용이 6조6000억원이다. 국비 기준으로 보면 올해까지 8조3000억원이 집행되며 2014~2017년 기간 11조4000억원,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인 2018년부터는 6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계속사업의 경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84조원이 필요한 신규사업이다. 96개 신규사업은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재원소요계획과 재원별 분담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 실제 광주시·전남도는 정부가 이 지역 공약사업 중 어떤 것을 계속·신규사업으로 나눴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SOC 사업의 추진과정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등의 단계로 이뤄지는데 철도사업 등은 사업착수까지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사업 추진기간이 길어 현 정부에서 계획만 세우고 부담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늘고, 실현 가능성이 작은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무상보육 등 복지재원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지방비 마련이 힘들고, 민간투자 확대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광주시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전국 13개 사업에 투자해 문제를 일으킨 ‘맥쿼리 사례’를 거울 삼아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재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지역 공약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개)

	지역공약	공약사업		지역공약	공약사업
계	106	167	강원	8	12
부산	7	12	충북	7	10
대구	7	10	충남/세종	7	10
인천	7	11	전북	7	9
광주	7	11	전남	7	11
대전	7	13	경북	7	13
울산	7	9	경남	7	14
경기/서울	8	9	제주	6	13

□ 광주

지역공약(7개)	공약사업(11개)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 세계적인 민주 · 인권 · 평화도시 구축 사업지원	· 5 · 18 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공 원화 사업 추진
	· 교육 · 문화공간 확대
	· 광주교도소~시가문화권~무등산~구도청 및 5·18 아카이브센터 등을 5·18 사적지와 연결하는 세계적인 인권 · 관광벨트 구축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부산~순천간 철도 고속화
	· 송정~순천간 철도 개량
·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 양동시장일대 광주천 복원 및 현대화사업 추진
	·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복원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 광주외곽으로 연장 16.15㎞의 4차로 건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 관련 인프라 구축
·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 녹색 산업 육성, 녹색 환경도시 모델 사업 시행

□ 전남

지역공약(7개)	공약사업(11개)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 호남 KTX(오송~익산~광주 송정~ 무안공항~목포)를 적극 추진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송정~순천간 철도 선형개량 병행 추진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추진 적극 검토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광주와 완도를 잇는 4차선 도로 건설 추진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계획 수립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새누리 “원안 추진”…일부 의원들 “난리났다” 당혹

민주당 “공약 뒤집기…박근혜식 ‘손바닥 포퓰리즘’”

여야는 지난 5일 정부가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된 데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며 지역별 공약을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요소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자본 활용이 정부의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민간투자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타당성 있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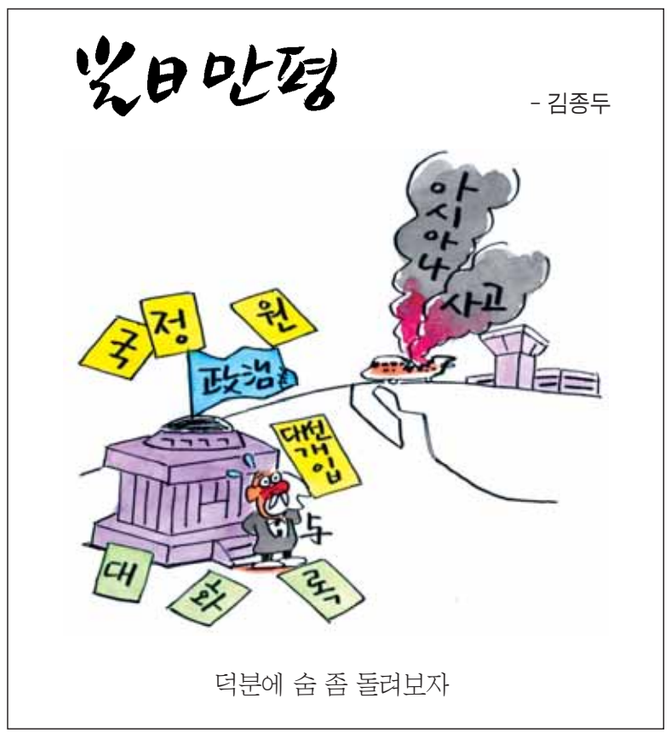
반면, 공약의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지역 의원들은 “벌써 지역에서는 난리”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사업 중 경제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없는 신규 사업을 보류하거나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일단 표가 되면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박근혜식 ‘손바닥 포퓰리즘’의 시작으로,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내세우기 이전에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용 발표”라며 “애매모호한 발표로 지역주민을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적시되지 않은 이행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신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사업기획이나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복지비 부담 증가, 지방세수 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덕분에 숨 좀 돌려보자

대형 SOC 사업 ‘청신호’

일부는 재검토·축소 불가피

광주·전남 지역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첫 삽도 못 뜬 사업 탄력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포함돼 대형 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 재검토나 축소·변경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된 이 지역 SOC 사업은 ▲남해안 철도고속화(부산~순천 고속화, 송정~순천간 철도 개량)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호남 KTX(송정~목포)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5건이다.

정부는 ‘최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세워 그동안 사업 타당성에 발목이 묶여 첫 삽도 뜨지 못했던 이들 SOC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된 일부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경제성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기준인 B/C(비용편익비)가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나온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예로 들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절대적인 잣대’였던 타당성 조사를 여건에 맞게 다시 추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B/C가 낮아 불이익을 받았던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사업 규모 조정 등 재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문턱은 낮아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SOC의 노선이 단축되거나 변경되는 등 지역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은 ‘단계적 추진’하고 한려대교 건설은 ‘적극 검토’한다는 등 일부 이 지역 SOC 공약 이행계획에 애매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사업 재검토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SOC는 대부분 시·도가 수년 동안 공을 들여온 지역 현안 사업이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가세요!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궁전예식장 건너편] 061)742-1270

무인출발 [APPF05-PRQ] 팍상한폭포/따가이따이 [호핑투어] 마닐라 4박5일 출발일 8월 11일(일) 1,049,000원
※포함 사항: 왕복항공권, 여행지입장료, 인천공항세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550페소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공동경비 10$ 방석, 구명조끼 및 기타비용, 물값 및 기타 개인경비
※특 전: 팍상한 폭포, 승마관광 포함, 캐논코브 리조트 1박, 바탕가스 아일랜드 호핑투어, 사브사브 특식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직항 오감만족, 마카오 & 홍콩
7월27일,30일,8월 2일, 5일 2박 4일(총4회)
[CHPF05-NX1] *스탠리마켓*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특전: 에그타르트 ※특식: 얌차식,포르투갈식
[CHPF07-NX1] *오픈탑버스* 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원~
※특전: 에그타르트,오픈 탑 버스 ※특식: 얌차식,포르투갈식
[CHPF05-NXA] *쉐라톤호텔2박+마카오1일관광*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특전 : 2012년 9월 완공된 초특급 호텔 마카오 쉐라톤 (디럭스룸) 2박 숙박 ※일정: 마카오 1일관광+자유일정
[CHPF05-NXC] *NO TIP+옹핑360+나이트투어*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특전: NO TIP, 옹핑케이블카,빅토리아피크트램 탑승(편도), 나이트투어(홍콩:2층버스+야시장+스타페리/마카오:윈분수쇼+마카오타워+나무쇼) ※특식: 점보레스토랑,얌차식,포르투갈식

세부직항 천혜의 휴양지 필리핀 세부
8월7일 ~ 8월17일(총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특급호텔 [APPF01-Z2] 세부 4일/ 5일 899,000원~
※특전 :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특식 :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샤브샤브
5성급호텔 [APPF01-Z2] 세부 4일/ 5일 1,0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현지식 팔방수, 롬당 서비스 제공 (현지 과일 1kg, 할로할로 -현지식 팥빙수 제공 등)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고등어 불고기 특식
4성급리조트 [APPF02-Z2] 세부 4일/ 5일 9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5성급리조트 [APPF02-Z2] 세부 4일/ 5일 1,1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현지식 팔방수, 롬당 서비스 제공 (현지 과일 1kg, 할로할로 -현지식 팥빙수 제공 등)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고등어 불고기 특식

광주/전남 기획상품
인천출발 동유럽 5개국 9일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 출발일 9월 27일(금) 3,900,000원
※불포함 사항: 개인경비, 일정외 선택관광, 공동경비, 인솔자/가이드/기사팁, 물값 ※포함 사항 : 일정상 식사 & 입장료, 3대 옵션포함, 광주-인천공항수송, 국내식사2회, 유류세(30만원)
미동부 캐나다 8박 10일 출발일 9월 13일(금) 3,990,000원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 ESTA 발급 수수료(20,000원),가이드/기사팁, 물값, 선택관광 경비 및 기타 개인경비 ※포 함 사 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전일정 식사 & 입장료

집중모객 특가 [JKP744-CRD] 야나가와 뱃놀이 카멜리아 3박4일 출발일 299,000원
7월 7,14,17~23일 8월 18~21일 9월 1,3,6,8,10,22,24일
※특 전:아소팜빌리지 호텔급 + 힐튼씨호크 호텔급 특급2연박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우는 가와쿠다리 뱃놀이 체험 세계최대 칼데라 아소 활화산 관광 대표 온천마을 벳부 & 유후인 관광 후쿠오카 최대 쇼핑몰 캐널시티 자유관광
※불포함 사항:유류할증료(3만원), 가이드/기사팁(3만원), 선내식2회, 현지 석식1회, 국내수송

트레킹 상품
[AMK113-ZEQ] 코타키나발루 정상등정 & 산호섬 휴양 4박5일 출발일 8월 10일(토) 1,680,000원
※불포함 사항 : 기타개인경비 ※포함사 항 : 인천 - 현지 공항세, 일정상의 차량 숙박, 식사,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특전 : 스팀봇 (무제한 뷔페, 특식포함) , 산호섬 스노클링 장비 무료 대여 키나발루산 등반증명서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외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